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9호 【부제 제25482호】 주제 105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6》을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천만근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함북도피해복구건설에서 새인을 놀때우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박영식 동지, 리영길 동지, 조남진 동지, 조경철 동지, 최영호 동지, 손철주 동지가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리수용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용 동지, 김영철 동지, 리일환 동지, 리영패 동지, 리병철 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비행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번째, 전화의 근위부대가 되자!》, 《모두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전법에 정통하자!》,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



하면서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용감무쌍한 김정은비행대의 전투적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완성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석 단감시대에 앞장서서 정결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경기는 추격기조와 경비행기조로 나누어 진행되였다.

비행편대단위 쌍기로 리륙하여 목표구역에 접근한 다음 원목표에 각종 항공무장으로 공격과 사격을 진행하고 착륙하는 순차와 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되였다.

순위는 각종 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들을 종합하여 조별, 부대별로 결정하였다.

지심을 올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련진 불꽃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속을 뚫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영웅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달력과 배짱을 안고 타격목표를 향해 비수같이 날아들며 명중타격을 들이대였다.

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이라는 글발이 새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오전 9시 함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철주 동지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이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기대회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어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은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완벽한 실천능력과 지휘능력, 높은 비행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만능비행사들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펼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의 거세찬 혼연열, 투쟁열, 경정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함으로 의의깊은 훈련경기라고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6》을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평시에 번마려운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정확하고 솜씨있게 리착륙을 진행하는것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치렬하고 열띤 경기모습을 보시며 비행술이 높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비행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공군 인의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속에서 훈련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우리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하고 또 훈련

하여 일단 최후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없이 초토화 해버리고 남침하는 인민군부대들에 전격의 대포로를 열어주라고 강조하시였다.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하였으며 리명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깃과 메달, 상장을 수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대회에서 1등을 정취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드겁게 고무 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기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여췌올리였다.

전군의 장병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 명령판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때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6》은 훈련혁명의 불바람속에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역적같이 다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폭풍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무질질한 발버둥치는 철천지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를 피우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멸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온갖 지성을 다하여 보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지니고 금천군광곡만대소 로동자 박경희는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관리사업에 지성을 바치였으며 절세위인들의 태양상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하였다.

8.28형년돌격대 대한 리철은 주체의 혁명전풍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정순의 자욕을 새겨갈 마음이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조선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만경대구역 민정대상점 로동자 한은하, 대상은행 산하단위 부원 김성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수무단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평양인과종합병원을 우리 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꾸리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가슴에 새기고 평양역전태화정 로동자 리원옥은 매일 전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불심판면으로 도와주었다.

민중경제협력위원회 산하단위 기사 김원철도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사랑과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병원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을 새 세대의

도덕적의무로 간직한 서성공업대학 교원 리덕범은 10여년간 영예군인이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가도록 그의 건강과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어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다.

사리원시상사수도난방사업소 로동자 박광남도 오랜 기간 영예군인을 위해 사심없는 진정을 바쳤으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현육의 정을 다해 키워 내세우는 미풍을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백두산선출위인들을 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데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명도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원함부대별 내성방사포병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지께서는 포병훈련을 실전환경에 접근된 실용적인 훈련으로 전환함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게 되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데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미국의 UPI통신은 김정은명도지께서 최근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시찰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명도지께서 직직승기북전대소멸을 위한 내성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경기를 통하여 내성방사포병들의 전투능력을 판정 및 확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지어올리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를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백두산은 조선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정은명도지의 고향이기도 하다.

김정은명도지께서는 사격경기를 지도하시면서 육체적한

계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내성군인들의 총정심은 남성군인들과 조급도 차이가 없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포병들이 언제 어디서든 포사격명령을 받아도 즉시에 명중포탄을 날릴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로씨야의 즈베즈다TV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북방강신분》, 신화망, 국제방송망, 만나신문 《더 미로 데일리》, 알제리 인민신문 《알 빌라드》,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도이쾰른드반제연단 인터넷 트루메지 《현지지도소식물》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제 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세스포조선선선협회의 인터넷트루메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칸》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선선협회의 인터넷트루메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함도망아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백두산세스포조선선선협회의 인터넷트루메지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김리도전초기지와 장제도망아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신문,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기상을 떨친 또 하나의 승전소식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 1 위쟁취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만전승하여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이번 경기대회 조별리그에서부터 우승을 기록해온 우리 나라 팀은 준준결승경기에서 에스빠냐팀을, 준결승경기에서 미국팀을 물리치고 결승경기에서 프랑스팀과 대결하게 되었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나라 팀과 프랑스팀사이의 결승경기가 3일에 진행되었다.

승전소식을 기다리는 조국인민들의 기대와 당부를 새겨안고 출진한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높은 축구기술과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파시하며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해나갔다.

결승경기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팽팽한 선수들의 명활약으로 하여 시작부터 치열하였다.

빠른 기동과 높은 기술수준으로 공격과 방어를 능숙하게 해나가는 양팀의 경기활주로 본선에서의 온전치 거침없는 속이 경기시간 17분경 어렵게도 우리 팀이 먼저 실점을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방아쇠부터 공격으로의 이행속도를 높여면서 적극적인 공격전을 벌이며 상대팀을 끈속 위협하였다.

경기시간 30분경 우리 팀의 11번 김경화선수가 공격마당 왼쪽에서 넘겨준 공을 잡은 6번 위정실선수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안으로 보기 좋게 차넣어 득점하였다.

1:1로 비긴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이 시작되어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는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하여 상대팀 문안에서 이어 온전이 벌어졌다.

우리 선수들이 잘 짜인 공력박과 역습속공으로 맹공을 펼치는데는 가운데 경기시간 55분경 필사키로 날아오는 공을 6번 위정실선수가 세지 않게 머리로 넘겼다.

순간 11번 김경화선수가 돌입하면서

머리발로 멋들어지게 볼을 넣었다.

기세충천한 우리 선수들은 공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상대팀을 압박하였다.

공격마당 왼쪽에서 필사키구력으로 돌입하던 11번 김경화선수에 대한 상대방 방어수의 무력한 반칙으로 프랑스팀에 11m발차기가

선언되었다.

경기시간 87분경 우리 나라 팀의 확고한 승리를 결정짓는 발차기에 나선 12번 진소연선수가 힘차고도 정확한 차넣기로 프랑스팀 골문을 또다시 흔들어놓았다.

실점을 만회해보려고 프랑스팀에서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하였지만 우리 팀의 잘 짜인 방어전을

뚫지 못하였다.

결국 결승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프랑스팀을 3:1로 누르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조국인민들의 기대에 율동보답한 커다란 공지와 승리의 환희에 넘쳐 열싸안고 람곡역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며 감격을 감지 못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감사를 보내었다.

미더운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스런 경기소식은 새로운 전화위부의 기적을 창조한 기세로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주체조선의 기상을 다시금 펼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무모를 베풀었던 조국인민들은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년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3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혁명적농민 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혁명발전의 년대기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당

의 믿음직한 옹호자,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길 열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양영성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주체적농민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농업근로자동맹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적혀져있었다.

진제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의 진주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평양 도착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가르침을 받들어 농촌건설구상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력 농업근로자동맹원들이 불려있으며 농업근로자동맹 조직의 강화발전에서 앞장서고 있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농촌건설구상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력 농업근로자동맹원들이 불려있으며 농업근로자동맹 조직의 강화발전에서 앞장서고 있다.

관계부문, 농업맹원들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농업근로자동맹의 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의 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대

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합계 이바지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3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총성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한 총동원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전

행되는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된 대표들의 공지와 자부심이 속소마다에 넘쳐났다.

김기남동지, 박범기동지와 평중앙위원회, 농업맹원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지난 기간 동맹조직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

한 진주력으로 강화발전시키었으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농업맹원들과 농업맹원들, 농업근로자동맹원들이 축하하였다.

진제 대회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주체적인 농업혁명건설사상과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에서 적극적역할을 일으키는데 참합계 이바지해나갈것을 그들은 당 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도업적단위의 양묘사업을 도와주어

자강도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모심과 같은 해곡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자강시외에 자리잡고있는 도산군시험양보장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다. 그러나 자강시외에 자리잡고있는 도산군시험양보장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다. 그러나 자강시외에 자리잡고있는 도산군시험양보장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다.

들과 노동자들은 태양열온실에서 키운 우량종묘의 나무모들을 품도 손수거하여 수천명의 의용과 한이상의 인발장편을 해결하여 시험양보장에 보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시험양보장주내에 수백㎡의 배기법장을 진 야외배기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시험양보장장 장자강기공의 규격화된 나무모밭에서는 우량종묘의 나무모들과 불어나루, 은행나무를 비롯한 나무모들이 자라고있다. 여기에도 도산군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의 보살피고 같은 애국의 마음이 깃들여있다.

그곳은 오래전에 있던 건물물 허물어버린 자리였다. 땅속에 콩크리트기초가 그대로 박혀있는 공지는 시험양보장과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있어 수려한 수목원의 흥점으로 남아있었다.

도산군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누구도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공지를 시험양보장의 나무모생산에 이바지하는 나무모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인민보안원들은 함의와 정대모범을 보이면서도 작업반의 농업근로자동맹모두가 총성의 200일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는에서도 선봉적역할을 하게 하고있다.

이 나날에 작업반은 전투력이 강한 집단,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정신이 차연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로동신문 박희욱

원물자를 자동차에 싣고 도의 한 공장에 찾아가 노동자들을 고무해주면서 수천명의 의용과 한이상의 인발장편을 해결하여 시험양보장에 보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시험양보장주내에 수백㎡의 배기법장을 진 야외배기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시험양보장장 장자강기공의 규격화된 나무모밭에서는 우량종묘의 나무모들과 불어나루, 은행나무를 비롯한 나무모들이 자라고있다. 여기에도 도산군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의 보살피고 같은 애국의 마음이 깃들여있다.

그곳은 오래전에 있던 건물물 허물어버린 자리였다. 땅속에 콩크리트기초가 그대로 박혀있는 공지는 시험양보장과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있어 수려한 수목원의 흥점으로 남아있었다.

도산군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은 누구도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공지를 시험양보장의 나무모생산에 이바지하는 나무모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인민보안원들은 함의와 정대모범을 보이면서도 작업반의 농업근로자동맹모두가 총성의 200일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는에서도 선봉적역할을 하게 하고있다.

이 나날에 작업반은 전투력이 강한 집단,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정신이 차연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로동신문 박희욱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사포구역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총부로서는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구역의 책임일군이 유치원건설을 시작하기로 결심한것은 지난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명, 미래사망의 뜻이 팔짝 팔짝 뛰어나는 현실을 목격하며 구역당위원장 리춘화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과연 우리가 당의 뜻대로 일하고있는가?》

자책이 있었다. 구역에 유치원이 모자라 일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불편을 느끼고있었던것이였다. 그래서 하루빨리 최상의 수준으로 유치원을 건설할것을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일관을 전개하기도 전에 많은 일군들이 도리머리를 지었다. 눈치더어서 건설속도가

저질수 있다는것, 자체로는 어렵도 없다는것, 노력, 자책 등 구역에 예비가 없다는것... 그렇게 않아도 될까라는 일이 많은데 하나하나 견주하면서 보자는 의지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부예비는 일을 하겠다고 팔파하는 일군들이 찾아낼수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투철한 사람은 달린 문도 열고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린 문으로도 나가지 못합니다.》

구역당위원장의 목소리는 준철하였다.

달린 문과 열린 문! 정공을 찌르는 그 말에 일군들의 머리는 숙여졌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과 헌신적인 자기가 부족했던 자신들이었다. 그러나 새 일군을 놓고 동료였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후진행된 유치원건설전투는 일군들속에 지대한 낙담을 낳았다. 그곳엔 사교관계를 말끔히 가세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

구역의 호주인 인민위원회책임일군들이 보초를 맞추며 두문, 세문을 해체했다.

유용자를 마련해가지고 전투장으로 달려나오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야간동력대원이 되는 사람들의 대렬도 점점 늘어났다. 늙은이들까지 달려나와 일군을 도와주고 때를 쓰는 바리에 밤을 땀 일군들도 있었다. 이렇듯 대공의 정신력이 발휘되는 속에 내부예비가 탐구동원되고 절로있던 문제점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

했다.

분위기가 앙양될수록 구역당위원회는 청인식정치사업을 벌이며 건설장기 부류부류 끌어내리게 하였다.

지역자강의 정신력을 총동원시켜 하루빨리 유치원을 훌륭하게 건설시키고 열렬히 호소하는 구역당일군의 기백있는 목소리, 정신이 번쩍 드는 직관성, 감화력있는 예술선봉, 방송선봉으로 전투장은 그야말로 불도끼로 되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투철한 일군들의 눈에는 일감이 보이며 그 실천을 위한 방도도 찾아내게마련이다.

【본사기자 전경서

한공의 날을 일당기에는 적극 기여하였다.

일군들의 마음에 떠날래 유치원은 훌륭하게 꾸러지게 되었다.

그 나날은 일부 일군들의 낮은 사상관념이 총지부를 겪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확립하게 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 일을 추억하며 구역의 일군들은 말했다.

《일군들이 헌신의 밤을 바칠 때만이 사업에서의 성과를 거두리게 되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투철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

후으로 세계각국도 적극 이끌어 주고있다. 당세포의 역할은 언제나 농업근로자동맹에 깊이 들어와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보고의 내용을 알아보고 풀어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뒤떨어지는 사

람이 있을때라 마땅히 보살펴주도록 하고있다.

당세포에서는 당원들에게 개별적농업근로자동맹에 대한 양사업분공을 주고 분공수행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업적수행에서

모범을 보이면서도 작업반의 농업근로자동맹모두가 총성의 200일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는에서도 선봉적역할을 하게 하고있다.

이 나날에 작업반은 전투력이 강한 집단,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정신이 차연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로동신문 박희욱

그들은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다

봉산군계신소 청계계신봉소 우편통신원들인 김수남, 광명옥동부

한정생 우편통신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험치 않은 일을 수십년간 함께 해오셨는 부부가 있다. 김수남, 광명옥동부는 봉산군계신소 청계계신봉소에서 우편통신원으로 일하고있다. 같은 계신봉소에서 남편은 30여년, 아내 는 26년에 우편통신원생활을 하고있다. 정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끝없는 지켜야 할 혁명가의 가장 고상한 품성입니다.》

우편통신원부부, 이 부부가 박사부부, 혁신자부부라는 부름 못지 않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파라자부부는 조국일에 한생을 바친 탐구의 열매를 내놓고 로동자부부는 성실한 근로의 땅이 깃든 재물을 자라자라 샅아를 만든다.

하지만 매일 왕복 60여리의 똑같은 길을 걸으며 계신봉소에서 무겁게 메고 떠나는 우편가방이 집에 돌아올 때에는 빈 가방이 되어 돌아오는 우편통신원부부의 헌신의 대가는 한없이 커질수 있을것인가.

한편 내일은 우편통신원의 길을 수십년 동안 일련단선 끝바로, 곳곳이 걸어나 김수남, 광명옥동부의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은 이 나라 공민들에게 자기가 걸어나 인생길, 자신과 가정이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통신원이 있어야 하였다.

김수남동부는 마음속으로 그 자리에 앉혀 줄 세워보았다. 그런데 우편통신을 마치고 오느라 자기를 마중나오는 인해를 볼 때면 끝까지 잊지 못할 생각이 가득했어 사바였다. 둘째를 갖 낳은 인해는 몸이 너무도 여려였다.

그날도 자진하여 오봉리에 대한 우편통신을 하느라 밤이 꽤 깊어 돌아오는 남편의 대가를 한없이 커질수 있을것인가.

사실은 아내의 정다운 품속에 김수남 동부는 추위를 특별 느껴보았다.

《우리 우편통신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처럼 따뜻한 온이 나라고 신론, 잠지들 들고 여기저기 두터다나는 우편배달부가 아니요.

정자 우편가방을 메고 다녀보니 어떤 면에서는 우편통신원이 맡은 일이 선로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요.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정신적활력을 안겨주는 혁명 사업을 한다고 할가. 《정신적활력을 안겨주는 혁명사업!》 하고 조용히 남편의 말을 새겨보는 광명옥동부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이 자주 외우던 그 말을 자신과 직접 연결시켜보려는 처음이었다.

사실 우편통신원이란 일선사직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임없이 하 으면서 집집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라 매일과 휴일이란 모르 다일이 한다. 혹 아사서 일일이 못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일까지 맡아주곤 하는 남편이었다. 어떻게 한우일, 한말이 지 나고 한해가 흐르느라 지모 정도로 드러나 게 매일 똑같은 일과로 남과 땅을 보내면 서도 우편통신원임을 인민들이 당의 사상 과 승결과 심장을 뛰도록 하는 혁명사업 으로 여기는 김수남 광명옥동부의 성실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평범한 우편통신원이었으나 광명 옥동부에게 있어서 생활의 스승과도 같았다. 그가 지닌 그 마음은 그대로 선봉이었 으며 사상이었다.

항상이 대독함으로써 고지식한 남편은 우리 당사상전선의 빈자리를 따돌리던 가장 가까 운 혁명동지인 자기 광명옥동이 지겨우까 바라고있었다.

그들의 첫돌이 지난 다음날이었다. 예전 처럼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 광명 옥동부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제 직업전선 봉소로 꼭 제기하 세요.》

《고감소.》 하며 김수남동부는 인해를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때 방에서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수남 동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렁거렸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같이 함께 내쳐 걸 가라. 애들처럼, 걸리걸리 아이에 말고...》

정경대로 천리만고조시기도 오고 그렇 고 오늘에도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 고 마음을 울지 못하는 우편통신원의 지 분이니 그럴 이어서는 인된다고 선택하던 김수남동부의 마음은 울렁거렸다. 아내들이 선택하던 김수남동부의 마음은 울렁거렸다. 아내들이 선택하던 김수남동부의 마음은 울렁거렸다.

우편통신의 길에 나섰다가 봉소에 들어서면 광명옥동부는 황급히 나오는 한 더듬부와 부딪혔다.

평범한 사무실의 탁자에 놓인 우편가방과 우편통신원장, 논길을 뛰우는 더듬부... 모든것을 대들 집착할수 있었다.

《집사정이 딱해서...》하고 말문을 흐리며 떠나는 그의 뒤모습을 광명옥동부는 망연 히 바라보았다. 떠나가는 그의 정성이 슬픈 리해가 되었다.

고난의 과도가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은 너인들의 애간장을 모르게 말리우던 시기였다.

광명옥동부의 집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밀바닥이 뽀뽀 들어다보이는 쌀독, 매일 헹구지 못하는 구들, 날로 수축해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아이들...

침없는 현실이아는 저녁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메고 돌아오는 우편가방에 겨우겨우 담겨달라달라 시무룩해서 떨어 지곤 했다. 둘 다 비어있었던것이다.

광명옥동부의 속에 제가 없는것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집살림을 맡기고 우편통신으로 종일 집을 떠나는 자기가 민망스러웠다. 그는 식구들을 위해 자신이 남몰래 끼니를 더민 힘겨운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

(이리다 그 애들도 가정도 다 쓰러진 다면...) 말하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남편에게 조심히 내비쳤다.

《서라도 일을 그만두고 집살림을...》 하고 말문을 열며두리는 그는 남편은 한참이 나 바라보지만 할말 목욕부양이었다. 아내의 마음속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수남 동부였다. 광명옥동부 역시 남편의 침묵에서 그의 마음속소리를 심장으로 듣고 있었다.

김수남동부는 아무말없이 우편가방을 들고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 좋은 편 후속지만 우편통신의 길을 떠날 때의 자제만은 어찌 나 오날이나 어찌나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광명옥동부의 눈에는 뜨거웠었다.

긴장한 전기사정에도 집집의 불빛이 꺼지지 않자마자 멈춰서며 소리를 낮춰, 땀이 끼이지 않게 조심하게 되었다. 좋은 편 후속지만 우편통신의 길을 떠날 때의 자제만은 어찌 나 오날이나 어찌나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광명옥동부의 눈에는 뜨거웠었다.

긴장한 전기사정에도 집집의 불빛이 꺼지지 않자마자 멈춰서며 소리를 낮춰, 땀이 끼이지 않게 조심하게 되었다. 좋은 편 후속지만 우편통신의 길을 떠날 때의 자제만은 어찌 나 오날이나 어찌나 변함없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광명옥동부의 눈에는 뜨거웠었다.

했다. 광명옥동부는 가슴이 풀풀하여 다른 말을 더 할수 없었다.

그것은 참된 밤심의 인간불인 김수남, 광명옥동부들의 깨끗한 생활을 비추어주는 지울파도 같았다. 신발이 다 닳도록, 우편 가방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해지도록 우편통신의 길을 이어가면서 도 그들은 무엇이든 그 무엇도 마라지 않았다. 우편통신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인 담 바다 해지는 신발을 새것으로 바꾸어주는 큰맘까지 남편이 드러내보이지 않았다.

자기 한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단 한발자국도 걸을수 없는 그 길을 누가 보 지않던, 알아주지않던 억세게 걸어왔다. 우편가방을 메고 홀로 산길, 오솔길을 하루 왕복 60여리 걸으며 그들부부는 자기들이 걸는 그 길이 우리 당중앙따라파 이어 지고있고 생각하고있고 당과 승결과 말문을 도 함께 했다. 그 길을 한지라도 헛디딤새라 는 마음을 다잡았다. 사람들에게 이쁨받을 수 없는 죄업, 그들은 배설과 각오가 꿰뚫어 는 정신적활력이 들어있는 우편가방에 그들의 보람과 행복과 희망의 전부가 있 었다. 그것은 어려움과 아픔속에서도 신념과 믿음을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꿰뚫어 이어올수 있게 마음을 버리어주었다.

고난의 그 시기 그들은 뜻밖에 둘째를 잃 는 상실의 아픔도 당했다. 어려운 때에서 7살이 되도록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한 딸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른날 눈물을 삼키며 우편통신의 길에 나섰었다.

본소장과 농업원들은 그러다 산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하면 어찌였는가고, 우리가 우 편통신을 하겠다고 하루먼이라도 아픔을 잊 어라고 당부했다. 한사코 활을 잡으려는 본소 장에게 광명옥동부는 단답하게 말했다.

《오봉리사람들이 날 기다리는데 제가 꼭 가야 합니다.》

김수남동부도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우편가방을 메고 밖으로, 남으로 당부지역을 향해 강인하게 걸음을 옮기게 는 그를 바라보며 본소와 청계리사람들은 오열을 짓었다.

김수남, 광명옥동부 이름은 플라도 당당 지역의 주민들이 리용하지 못하는 때에 우 리 우편통신원들은 당사상전선의 마지막 전지가 아니라 1선전지를 지어선 것일뿐 이다. 집일을 걱정하며 초소에 빈자리를 떠꾸고 뒤로 물러선 병사나 있다면 그의 눈과귀를 과연 무엇이든 세심할수 있던 말인가.

이것이 김수남동부의 심장에 배어있던 당적명심, 공민적정신의 준엄한 목소리였다. 그날 밤 광명옥동부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뒤쫓았다. 김수남동부는 아내의 두손을 꼭 잡았다.

《전선집에서 초소의 신분계사관을 보시며 그리고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 한시도 잊지 않자. 우편가방을 메고 쓰러져 숨질지정신 수면 걸터도 이 길에서 불타신 안니요. 걸터!》

말씀은 그말 그들부부는 정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일련단선 우편통신의 길을 총지 하게 이어가리라고 굳게굳게 다짐했다.

신념이란 결코 흔들림 없는 단단대야인 나 칠장속에 담긴 정열의 결이 아니었다. 지 난 고난의 행군기간도 그러했었다. 오늘도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공민들의 신념과 항성의 전가, 인간의 지조를 증명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그런 계 가물마데서 이들 우편통신원부부처럼 혁 명일에는 당과 조국에 비추어보는 자신의 광심은 언제나 깨어있었다고 몇몇이 자랑 할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높은 것일까.

시련이 커질수록 가정의 식량사정은 더욱 전기가 어려운 지경에도 치달았다. 월급이 바운 고강과 그대 역시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것을 꿰뚫고 집안을 총정 가리야한 행복환정이 아니었다. 없는 속에서도 오가는 것이 두렵고 사랑이 뜨거우면 실의 보람과 행복을 한껏 누릴수 있는것이다. 장성이가우며 정열의 준엄이 있어 죽을 쫓아먹으면서도, 삶은 부속으로 끼니를 예우 면서도 그들은 가정의 회복과 우편통신의 길을 변변히 이어갔다.

어느날 우편통신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 부부가 끼니도 없고 등잔불이 꺼져 오촌은도 우편가방과 심장을 수리하고있는데 본소 일꾼이 불췌우편부부가 왔었다.

《자, 끼니를 잊은것 같는데 이걸 어서...》 하고 호반한 성미 그대로 콘스로 그들부 부에게 열마리의 장성이가우르 든 자루를 넘겨주며 하던 그의 말이 중중부어되었다. 화동찬처럼 커진 두눈에 그들부부의 우편 가방과 심장이 뜨거워졌었다. 밀집이 메밀을 얼마나 길고 손질했는지 이제는 처음 의 모양을 거느린 찾아볼수 없게 된 두개의 우편가방, 그들부부의 신념은 그보다 더 힘

마와 광명옥동부는 주제 92(2003)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군에 자리잡 고있는 온정적친필통통농장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때죽고 있고 밤늦도록 담보레로의 길을 이어갔으며 혼자 살면서 생활상어려움을 겪고있는 종업 원을 자기 집에 매달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이끌 어주었다. 본소건설보수가 제기되자 집수 리를 위해 마련했던 세명도 서슴없이 내 놓았다.

김수남동부는 당세커머시(당시)로 사업 하는 동안 가정생활이 어려운 속에서도 시 항난을 겪고있는 우편통신원세대들에 여 러차례에 걸쳐 자기 집의 식량을 나누어주어 그들모두가 사상정신적활력을 안겨주는 보람한 우편통신의 길을 억세게 걸어오도록 하겠다. 동지들에게 나누어준 150Kg의 식량, 그것중 여섯 10t, 100t의 식량에 비길수 있었다.

우편통신원으로 사업하는 지난 30여년 간 김수남동부는 연 수심산란사 되는 《로동 신봉》을 읽고 수심산란사, 광명옥동부 역시 26년동안 수심산란사들과 함께 걸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 시키고 당정책관행으로 불리었었는데 적극 이사회자였다.

그러한 우편통신의 길에서 돌아오는 그 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의 미소가 비쳐있 으며 걸음걸음은 즐거움에 넘쳐있었다. 어 떻게 되고있던 우편가방이 가벼워져서인지 아니었다. 당보를 비롯한 당출판물들 손에 손에 들고 승리와 영광의 여정을 확신하며 근로자의 작오와 의지를 가다듬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 안겨들었었는지 이다.

억만큼 든 돈에나 천천, 만씩의 쌀이여가 아무리 귀하다고 할들 정신적활력을 안고 가는 그들의 우편가방에 어떻게 감히 비할 수 있랴. 우편가방에의 당출판물, 우편물 들은 날마다 말라졌어도 일선사직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을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 들속으로 우편통신의 길을 걸고있는 그들의 심장만은 오직 한분새 당의 사상과 승결과 동고였다.

고난을 맞아라 시련을 막치고 당의 목소 리를 인민들에게 전하며 우편통신의 길을 이어가는 김수남, 광명옥동부들의 사상정신 세계와 투쟁기풍은 집건의 나날 자기 한몸 이 그대 통신원이 되어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흘리며 싸온 우편통신원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수남동부는 노래 《대혁명 우리가 살고 있다》를 즐겨 부른다. 광명옥동부 역시 남편을 따라 이 노래를 지경처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화의 나날 용감한 공명정찰총대장이었던 아버지과 모범적정찰원인 어머니네대 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조국과 혁명 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고이 간직하고 사상상전선의 전초선역에 서게 지어는 김수남, 광명옥동부들.

행복한 날에도, 온전한 나날에도 혁명신 념과 순결한 항심을 간직하고 집살림다 《로동신봉》을 비롯한 당출판물때로 모든 것을 바치거나 사회주의는 파괴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와 파괴하였는것을 자각할 수주먹을 쥐고 달려와 정을 불리던 현유는 을 음울을 티지곤 했다. 것이 잘 나이지 않 았던것이다. 그때마다 걸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기를 달라는 시어머니에게 광명옥동부는 입버릇처럼 외쳤다.

《오늘을 옛날처럼 이야기할 때가 꼭 올거 예요.》

이런 그들 본소와 오봉리사람들은 《엄지 않은 사랑》,《이악업이 우편통신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애가 어머니인 그가 재물이 나 장성이며며에 앉아 남편을 불타는것을 지켜봐서서 우편통신의 길을 이어갔었다는 것은 사랑은 별로 없었다.

당의 목소리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찾아가는 그 길을 더 총하게 이어갔었다.

누구나 기다리는 《로동신봉》이 정을세라 김수남, 광명옥동부들은 눈비내리는 계절이 면 비닐막으로 풍뎌기 감한 다음 우편가 방에 내다 그것도 성치치 않아 가방을 땅수 로도 덧박고 갔고다. 자기들의 온몸은 눈비에 흠뻑 적으면서도 《로동신봉》을 넣 은 우편가방을 품에 안고 우편통신의 길을 이어가는 그들을 보며 누구나 탄복을 금치 못했었다.

고난의 시기에나 오늘에나 어느 하루도 드러지 않고 우편가방 가득히 《로동신봉》과 당출판물들을 안고 찾아가 인민들에게 필 소의 신념을 굳게 하여주는 정신적활력을 안겨주는 그들은 여느 보던 달걀같은다 마던 중임을 수행하는 선전자, 교양자들이 이인 책임감과 영예감을 안고 김수남동

의무우에 랑심이 있다

그들부부는 원래 우편통신원이 아니었다. 남편인 김수남동부는 선로공이었고 아내인 광명옥동부는 가정에서 부양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근제신소적으로도 한다하는 선로공이 었던 김수남동부가 우편통신원을 두고 생각을 깊히하게 된것은 30여년전 기풍이었다.

당창건 40년을 승려자의 덕축건으로 뜻깊게 맞이한 그날 청계역에서 사는 부모를 찾아간 그는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인연 있던 청계계신봉소 일꾼을 만났다.

《아니! 명철날에도 우편통신일을 가신 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에게 우편가방을 메고 일꾼은 우편통신이라 명철날, 휴식날이 어디 따로 있는가고 하면서 흔연히 질문을 재촉했다. 밀이져가는 그의 모습에서 김수 남동부는 오로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명철날에도 우편통신의 길을 이어가는 그가 몹시 돋보였다.

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본소의 우편통신원로력이 부족해서 종종 당출판물때로 늦어진다고 제일처럼 걱정 했다.《안철때도 우리 수평일때는 우편통신 사업을 몹시 중시하시었지. 내가 조금만 있었어도 우편통신일을 하는건데...》 하고 혼자서만 걱정 외우던 아버지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할, 근제신소 본소일인데 내가 우편통신원 일을 할수도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밖의 물음이 김수남동부에게 큰 충격은 졌다.

당시 봉산학원 부원장사업을 하고있던 아버지가 선로공일이 얼마나 중요인지 모 르지 않았다.

김수남동부는 걱정적인 1970년대 중엽에 계신봉소로 자원전환하였다. 그가 나리의 신경을 지켜줬다는 자과라 책임감 을 안고 직심스럽게 기술을 익히고 모의를 따르며 10년세월 선로수리의 정교보수를 믿음직하게 해오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을 받고있는것을 늘 내전처럼 여기던 아버지가

조국이 바라본것이였기때문은 아닌가. 당과 혁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스스로 맡아나서는것이 참된 항성의 선택이고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넉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김수남동부는 우편통신원이 될것을 결심 하였다.

10년동안 그처럼 고풍이 농촌자외도 같이 애호관하던 선로를 떠나 자진하여 우편통신원이 된 그를 보며 누구나 감동용 감치 못했다. 그들에게 김수남동부는 어버이수평일때서 농촌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한 우편통신원에게 아주 중요하고 영예로운 일을 한다고 치하하신 이야기를 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당의 우편통신원 으로 헌성을 살것습니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당의 우편통신원, 이것이 자기가 선택한 새 직업에 대한 김수남동부의 남다른 자부심이었다. 이렇게 되어 선로공으로 일하던 김수남동부는 당의 목소리를 전하고 인민들을 위해 복부 하는 우편통신원이 되었다.

계신봉소에서 제일 멀리에 있는 구산지 구를 자진하여 담당한 김수남동부는 매일 《로동신봉》을 비롯한 당출판물과 우편출판 물들은 우편가방을 메고 왕복 60여리길 을 걸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배로하 여 그들을 당의 사상과 뜻으로 무장시키고 당정책관행으로 불리었었는데 주경 이까지 하였다. 비오는 날이나 눈비날부는 겨울 에도 매일 이른새벽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당당단원들과 1, 20여세대의 주민 들을 찾아다니며 당출판물들을 배로하느라 어머이 것들이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땀은 그 의 얼굴에는 언저 피어생기와 희열이 넘

《신론이나 잡지, 편지를 날라다주는 일이 그렇게도 신이 나는가요?》

젊은 아내가 이렇게 물을 때면 그는 집마다 우편통이 있고 한가지 이상의 신물, 잠지와 같은 당출판물이 차려지도록 한 당의 온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밥짓기의 용을없는 밥짓고와 행복의 노래내지는 아영소 그리고 사회주의협동법에서 만났던 로동자들과 농민들, 아이들이 출판물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던 모습을 즐겁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어느때 겨울 본소의 한 우편통신원이 뜻 하지 않게 몸을 심하게 다쳐 때는 우편통신 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었다. 본소에서는 그가 담당했던 지역의 당출판물때로 하루 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본소으로부터 모든 우편통신원들이 번갈아가며 자기 담당구역에 대한 배보를 마치고 그 지역의 당출판물때를 맡아하곤 했다.

하지만 담당우편통신원이 없는 지역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수 없었다. 새 우편

로 총만졌기 아니었다.

다정한 우편통신원부부가 걸어나오는 길에는 헤어질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온전한 시기도 있었다. 헌신끝에 당한 인민의 대극상, 편이아 불타던 자연재해 와 계국주의자들의 고립합살책동... 상상도 못했던 참혹한 현실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고난의 행군기간을 서는 인민들을 찾아 우편통신의 길을 굳게 이어갔다. 《로동신봉》이 가득 담긴 우편가방이 어깨 를 때고있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전진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로동신봉》을 받아 안고 승려에 대한 헌신과 희열로 가슴을 먹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배고롭고 피곤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이렇게 고난의 날과 밤을 보내던 어느날 이었다. 그날도 끼니를 건넌데 남편과 함께

뜻깊은 올해에 강동군 명남로동자구가 플라보게 모습을 일실했다.

홀로 하게 꾸려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은 중심으로 그 모습이 더욱 화려 전 문화회관과 로동자구사무소, 출판물보급실과 비석세배장, 온실실 그리고 수백m의 프르르도 프랑도도와 일제시대 정립된 근 10여개의 명남원을 돌아보며 사람이마다 감탄과 탄사를 금치 못했었다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자기 고장을 세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 는 이곳 로동자구일꾼들과 주민 들의 애국적인 성실한 발마를 이 것들이었다.

다음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 군들에서 《자기 산천, 자기 양들》 더욱 아름답게

높이 수백m의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여 로동자구의 면모를 일신 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일꾼들과 주민들을 오배런 다리를 넘어버리고 프르르다 다리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근 10여개의 명남원정리와 석속 풍사를 와다라 끝내었다.

이곳 일꾼들과 주민들은 70 입원리의 짧은 기간에 로동자구 소재지와 주변을 새롭게 꾸려놓은 공사를 안고 당 7차례외를 감사를 와다라 하였다.

《김정일대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면 못낼 일이란 없습 니다.》

김관과 참사를 금치 못하는 사람들기에 이곳 일꾼들이 불려 주는 말이다.

본사기자 김지곤

이 길도 사회주의수호의 전선길이다

남다라 당의 목소리를 전하여주는 부부 우편통신원들을 오봉리와 구산지구 사람들은 언제나 반겨맞으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자기들이 정히 안고 온 《로동신봉》을 펼쳐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마다 그들부부의 가슴속에서는 인생의 참된 긍지와 보람이 가득차었다. 사시정형 이부러 끌고걸어도 조금도 힘은 들지 않았다. 《이제 《로동신봉》에 실린 사상을 독보한 후 오봉리사람들이 강령이양양전모교여섯기 를 그날로 화락하느라...》

《말전에서도 전기가 팽방 나오고있소.》 이른새벽 공작에 든 두 아들의 불을 다독 여주고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만났던 때면 그들부부는 기쁨에 넘쳐 자신들이 보고 들은 세라세로운 소식을 주고받곤 했다. 이웃들과 당방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부가 시로 다정히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음것이라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생활은 늘 즐거움과 행복, 평안으

로 총만졌기 아니었다.

다정한 우편통신원부부가 걸어나오는 길에는 헤어질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온전한 시기도 있었다. 헌신끝에 당한 인민의 대극상, 편이아 불타던 자연재해 와 계국주의자들의 고립합살책동... 상상도 못했던 참혹한 현실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고난의 행군기간을 서는 인민들을 찾아 우편통신의 길을 굳게 이어갔다. 《로동신봉》이 가득 담긴 우편가방이 어깨 를 때고있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전진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로동신봉》을 받아 안고 승려에 대한 헌신과 희열로 가슴을 먹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배고롭고 피곤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이렇게 고난의 날과 밤을 보내던 어느날 이었다. 그날도 끼니를 건넌데 남편과 함께

뜻깊은 올해에 강동군 명남로동자구가 플라보게 모습을 일실했다.

홀로 하게 꾸려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은 중심으로 그 모습이 더욱 화려 전 문화회관과 로동자구사무소, 출판물보급실과 비석세배장, 온실실 그리고 수백m의 프르르도 프랑도도와 일제시대 정립된 근 10여개의 명남원을 돌아보며 사람이마다 감탄과 탄사를 금치 못했었다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자기 고장을 세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 는 이곳 로동자구일꾼들과 주민 들의 애국적인 성실한 발마를 이 것들이었다.

다음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 군들에서 《자기 산천, 자기 양들》 더욱 아름답게

높이 수백m의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여 로동자구의 면모를 일신 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일꾼들과 주민들을 오배런 다리를 넘어버리고 프르르다 다리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근 10여개의 명남원정리와 석속 풍사를 와다라 끝내었다.

이곳 일꾼들과 주민들은 70 입원리의 짧은 기간에 로동자구 소재지와 주변을 새롭게 꾸려놓은 공사를 안고 당 7차례외를 감사를 와다라 하였다.

《김정일대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면 못낼 일이란 없습 니다.》

김관과 참사를 금치 못하는 사람들기에 이곳 일꾼들이 불려 주는 말이다.

본사기자 김지곤

뜻깊은 올해에 강동군 명남로동자구가 플라보게 모습을 일실했다.

홀로 하게 꾸려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은 중심으로 그 모습이 더욱 화려 전 문화회관과 로동자구사무소, 출판물보급실과 비석세배장, 온실실 그리고 수백m의 프르르도 프랑도도와 일제시대 정립된 근 10여개의 명남원을 돌아보며 사람이마다 감탄과 탄사를 금치 못했었다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자기 고장을 세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 는 이곳 로동자구일꾼들과 주민 들의 애국적인 성실한 발마를 이 것들이었다.

다음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 군들에서 《자기 산천, 자기 양들》 더욱 아름답게

적십자 및 적반회 국제련맹 위원장일행 도착

고노에 다다루 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및 적반회 자의 중앙위원회 집행 국제련맹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우리 나라 일행이 3일 평양에 에서 시작하고있는 도착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회의 평양국제비행장에 국제련맹대표단 성원 서 백용호 조선민주 이 맞이하였다.

니콜라스 스만스트렘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베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체류기간 만수대안덕에 높이 100여미터 수평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스웨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귀국

찾아 경보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위원회 일꾼들과 조선노동동맹 등 오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선 반도문제해결에서의 우리의 원칙적 입장장에 대해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변을 안아온 헌신의 땀방울

강동군 명남로동자구 일꾼들과 주민들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적십자 및 적반회 국제련맹 위원장일행 도착

고노에 다다루 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및 적반회 자의 중앙위원회 집행 국제련맹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우리 나라 일행이 3일 평양에 에서 시작하고있는 도착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회의 평양국제비행장에 국제련맹대표단 성원 서 백용호 조선민주 이 맞이하였다.

니콜라스 스만스트렘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베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체류기간 만수대안덕에 높이 100여미터 수평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스웨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귀국

찾아 경보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위원회 일꾼들과 조선노동동맹 등 오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선 반도문제해결에서의 우리의 원칙적 입장장에 대해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변을 안아온 헌신의 땀방울

강동군 명남로동자구 일꾼들과 주민들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적십자 및 적반회 국제련맹 위원장일행 도착

고노에 다다루 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및 적반회 자의 중앙위원회 집행 국제련맹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우리 나라 일행이 3일 평양에 에서 시작하고있는 도착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회의 평양국제비행장에 국제련맹대표단 성원 서 백용호 조선민주 이 맞이하였다.

니콜라스 스만스트렘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베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체류기간 만수대안덕에 높이 100여미터 수평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스웨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귀국

찾아 경보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위원회 일꾼들과 조선노동동맹 등 오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선 반도문제해결에서의 우리의 원칙적 입장장에 대해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변을 안아온 헌신의 땀방울

강동군 명남로동자구 일꾼들과 주민들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헌신의 땀방울

전루목에서 오레도록 눈길을 메지 못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몇몇 인되지 만 40여의 녀성사업장은 애국 헌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고있었다.

총성의 70일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을 찾아온 사무 장 김은숙동부는 며칠을 두고 저를 생각하고 착상한 전루목로 계 계기하였다.

공공건물들을 세우게 하며 토사도로 물 세멘트로 포장하고 평남원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것 등 내담하고 흥이 큰 단체명목 표...

초급당위원장은 사무장의 심 혈과 입욕심이 그대로 담겨진

피리패당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책동과 《안보불안》조성행위도 박근혜역도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지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각종 언론인들의 대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때에 피리패당이 《안보위기를 고위하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비친듯이 매달리고있다.

피리패당 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 장을 비롯한 군부주요인물들이 매일같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전방무대들과 특수전부대들을 돌아다니며 《북의 도발위협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를 떠들어대고있으며 피리패당합동참모본부와 무인기기를 우리측 수역과 평양에 침범시키고 서해열점수역에서 대규모적인 포식한사격훈련을 강행하는 등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있다.

그런가하면 12월에 예정되어있는 피리패당 주주총회를 20여일이 앞당겨 소집하고 각 군종 지휘관회의 등에서 군사적도발의란을 벌이고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경근엄을 리용한 북의 도발가능성으로 안보상황이 엄중하다.》, 《북의 핵 및 미사일발사시험이 임박하였다.》는 여론을 내뿜고있고 남조선내부에 《안보불안감》을 대대적으로 북돋우고있다.

피리패당주변정황이 흉흉해지고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에 광분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군사분계선일대와 남조선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한 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더 많은 혈세를 퍼주려고 발광하는 친미애국무리들을 한시바빠 쓸어버려야 한다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노복으로 된것을 감지하지하게 여기며 배후로 연명해가는 투쟁투쟁인, 총미군성이 벼속까지 불어넣어 피리패당당이 무뎠수 있는 후대이며 말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창상 70여년동안이나 우리 조국의 집안방방 가로 다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수치를 불어넣어주고있다.

이런 남조선강점군을 내쫓는 것 합당성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서울에서 진행된 197차 《주한미군사위협성합동회의》라는에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전기사용료규인상분제가 제기되었지만 어지럽게 묵살당하고 다음에도 종전처럼 남조선의 주재미군사위협성합동회의 대 부단규비중으로 볼 때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미국 해리리제네인 발표한 《2017년 미국군사비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피리패당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용에 드는 것 및 인건비, 각종 사용료규감면 등 직접 간접지원으로 년간 약 9억US\$의 자원을 제공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하루하루에 의하

투쟁을 피우는가 하면 《싸드》배치 후 추진하는것도 모자라 미국이 부르는대로 돈을 퍼주겠다고 자칭하면서 상건의 환신을 사보려고 억격해 놓아두고있다.

피리패당사업총장 장영진이 박근혜의 대항투쟁으로서 역도년의 《어영》을 받고 미국에 가서 비굴한 추대를 부린 사실은 박근혜당이 야말로 미국상건의 바지가쟁이에 매달려 간도 할개도 다 썩어주며 후추한 목숨을 연명해가는 비무라기 핵이 없는 제물들이라는것을 다 시한일 특특히 보여주었다.

상건에 발라맞추는수만 있다면 인민들의 혈세를 총체로 섭취해서 노는것 하나 까딱하지 않는 미제침략국적주력부대를 어떻게 더이상 용납할수 있겠는가.

오늘 남조선에서 거세게 파는 박근혜의 이러한 친미사태 총총정위 에 대하여 《애국정권》, 《미국에 대한 핵기투항》, 《미국에 항의할것을 퍼주었다는것》 등으로 단적구한 하면서 굴욕적인 《대미조공》행위를 촉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주대항투쟁사건으로 버랑팔에 대항한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데 이어 군수지원 협정 체결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분

남조선 전지역에서 212만여명이 6차 범국민행동 전개,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

남조선의 《KBS》, 《CBS》, 《MBC》방송 등 언론들에 의하면 3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범국민행동의 주위로 6차 범국민행동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사당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규탄 집회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범국민행동을 위한 사면집회들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장황에서는 민심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죄를 떠안고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 역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거져나왔다.

박근혜역도에 가장 비판한 결집을 안건 의지를 안고 거리에 펼쳐나선 수십만명의 군중이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청와대로의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전례없이 청와대 100m 까지 전진하여 통곡과 시국, 남쪽에서 에워싼 시위군중은 역도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 시위군중은 광화문광장으로 돌이와 촛불집회를 가지고 박근혜의 퇴진과 주축, 《새누리당》체제의 합성을 여했다.

인문들은 《청와대를 향한 거

제 처지도 모르는 천 하역적의 대결망동

미국정 피리패당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가 오스트랄리아의 무상과 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동쪽아시아에 일이 오면 피리패당이 의외와 이마를 맞대고 벌리는 모의판에서 대결망동밖에 울려나올것이다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윤병세역도는 《북의 직접적위협》이니, 《인권문제》라고 우리를 무시없이 접근고들면서 《대북공조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청탁하는 망동을 부렸다.

윤병세가 이미 저같이 단 반공화국체제, 압박 분위기를 외설하려고 비루먹은 개치법 의세의 온갖악마에 매달려 구걸하며 미쳐들어가는 불온세력에게 지지하고 있다. 윤병세의 추태는 의외와 광모결합하여 동쪽을 해치려고 지말방하는 친화역적의 대결망동이다.

피리패당이 제이무리 의외와 광모결합하며 《대북공조강화》에 대해 고이데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대결망동자의 매복진 무덤질, 폐쇄자들의 가담은 신승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미국과 추송세력의 발악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서도 동방의 령국으로 높이 솟아 필승의 기상을 펼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적들의 세력, 압박물음이 멀어질수록 더욱 돋보이는 햇공사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피리패당이 의외의 바지가쟁이를 불붙고 《대북공조강화》를 구걸하면 할수록 그것은 대세도 모르는 천지, 민족을 등진 대역역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낼뿐이다.

가관은 윤병세역도가 아직 제 처지를 모르고 속대공에 오른 민중이치러 견뎌주려하며 권력을 빼고있는것이다.

지금 윤병세가 회담이니 하니 하며 대거리를 쳐놓고다니 행편이 되거나.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정부는 전대미문의 총대항투쟁사건으로 하여 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하였다. 청와대의 늑대마귀는 언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박근혜의 뻔뻔스러운 책임회피를 비난

남조선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 《한나라당》원칙이 11월 30일 기자회견 《대국민담화》로 부정부패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있는 박근혜 역도를 비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국민담화》에는 로폐우회된 아편을 분포시킴으로써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가 깔려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87년 6월항쟁당시 로폐우회된 아편의 민주화 열거를 《6.29선언》으로 녹았다고 아편을 분포시킴 정권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

남조선인민대신 《민중의 소리》가 1일 《지금처럼 하면 새누리당은 초췌해 라죽을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이 어떻게 박근혜에 대한 탄핵 절차를 다시 논의할것을 요구하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퇴진이 더 늦어지라는 주장까지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그 이후에 여당내에서 미지나오는 이런 망언들은 친박계정권들의 제언에 따른것이라고 사실은 폭로하였다.

사실은 《새누리당》이 지금과

박근혜를 무덤속으로 보내자

남조선 야당들 민심의 버림을 받은 역도의 즉각 퇴진을 요구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3일 남조선의 야당들이 민심에 도전하여 전명부시를 위한 수사에 매달리는 박근혜역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론평에서 초법헌신은 이미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였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명예롭게 물러나 시 간을 얻어보고 버리고있지만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국민의 당 대변인은 《국회》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는것으로써 민족의 넘편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편공조로

남녘민중의 분노의 웨침-《단 하루도 용납 못한다》



청와대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장 글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장 최세진이 2일 글을 발표하며 붉은 불에 기질하는 격이 된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를 비난하였다.

같은 야당들은 물론 남조선 각계 박근혜의 이 《담화》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본체도 의를 여타치로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얻어보려는 술책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해나섰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가 후분사건의 공범자

로서 현직《대통령》으로서의 죄음으로 피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위한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느니 뉘니 하며 쿠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같은 비난하였다.

같은 《박근혜, 최순실후분사건》에 격분한 민중의 퇴진요구가 200만초봉이 되어 폭발하였으며 이번 《담화》는 거세게 타르온 퇴진요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행이 되었다고 조소하였다.

이제 박근혜가 할수 있는것은 즉시 청와대에서 물러나는것 뿐이라고 같은 주장하였다.

같은 민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한 군중은 청와대로 쳐들어와 박근혜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낼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재중조선인들은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철야농성에 나선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지지원한다고 하면서 같은 다시는 제2의 박근혜가 집권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